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 첫 공식 음원 '나의 하늘을 담아' 발매

2025년 12월 10일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담당		
	사업담당		
사진있음 ■ 쪽수 : 2	사진자료	첨부	

**가수 예린(전 걸그룹 여자친구) 보컬 참여, 12월 10일 정오 발매
따뜻한 위로와 동행의 메시지 담아 선사하는 희망과 온기**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가 12월 10일(수), 신곡 <나의 하늘을 담아> 음원을 발매한다. 이번 신곡에는 걸그룹 여자친구 출신으로 다방면에서 활동하는 가수 예린이 보컬리스트로 참여해,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만의 서정적인 사운드에 섬세한 감정선을 더했다.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는 경기아트센터(사장 김상희)가 지난해 창단한 단체로, 경기도 내 잠재력 있는 장애예술인 40명으로 구성된 전국 최초의 인재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이다.

▲따뜻한 겨울 감성을 담은 '나의 하늘을 담아'

'나의 하늘을 담아'는 멈춰 있던 시간 속에서 서로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순간, 그리고 힘겨운 하루를 건디는 이들에게 건네는 위로와 동행의 메시지를 담은 곡이다. "다시 시작하면 돼 너의 하늘을 담아", "겨울을 딛고 피어나 봄에 필 꽃잎처럼"이라는 가사처럼, 포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마음, 함께 걸겠다는 약속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잔잔한 피아노 라인 위에 어우러진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 특유의 감성적 연주와 예린의 투명한 보컬이 돋보인다. '온기, 회복, 새출발'이라는 서정성이 곡 전체를 이끌어간다.

▲예린 보컬 참여... "예린의 보컬이 곡을 완성시켰다"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 관계자는 "예린의 목소리는 '따뜻함과 투명함'이라는 곡의 핵심을 정확히 채워줬다. 과하지 않되 서정적이고 담백한 감정선으로 곡의 분위기를 완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라고 전했다. 예린 역시 "곡을 받자마자 여운이 오래 남았다. 내 목소리와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의 음악이 만나는 지점을 자연스럽게 만들고 싶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 다양한 도전과 새로운 시도로 열어갈 새로운 챕터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는 지난달 열린 '제1회 경기 배리어프리 페스티벌'의 마지막 날 예린과 함께한 라이브 연주로 이번 신곡을 최초 공개하며 축제의 대미를 장식했다. 앞서 9월에는 유다빈밴드의 정규2집 수록곡 '커티콜' 연주에 참여하며, 대중음악 아티스트와의 음악적 결합으로 예술계에 신선한 활력을 불어넣은 바 있다.

'장애예술'이라는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으로 스펙트럼을 확장하며 우리 사회에 다양성의 가치와 희망을 전하고 있다. 특히 이번 '나의 하늘을 담아' 음원 제작

은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가 추구하는 ‘감성·서정·따뜻함’이라는 음악적 세계를 보다 대중적인 감성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음원은 12월 10일 수요일 낮 12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음원은 타이틀 버전, 오케스트라 연주를 극대화한 오케스트라 버전, 타이틀 버전에서 보컬을 제외한 연주 버전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 발매정보

- 제 목: ‘나의 하늘을 담아’
- 아티스트: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Feat. 예린)
- 발 매 일: 2025. 12. 10.(수) 낮 12시
- 유통처: 각종 음원 사이트 및 스트리밍 플랫폼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 소개

‘대한민국 장애예술인의 산실로 성장할 꿈의 공장,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
‘세상에 하나뿐인, 새로운 하모니는 시작되었다’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는 2년의 활동 기간 동안 집중 교육과 다양한 연주 경험을 제공해 장애인이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 최초 인재 양성형 장애인 오케스트라이다. 장애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실력 있는 오케스트라로 성장하기 위해 잠재력 있는 단원을 선발하여 실력과 자부심을 높이는 활동 기획,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는 시스템과 함께, 경기도예술단 및 다양한 오케스트라와의 협연 등을 통해 무대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도민이 후원하고 함께 누리는 오케스트라를 목표로 창단된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는 수동적인 관객의 모습에서 벗어나 함께 운영해 나가는 소통의 오케스트라로 도민에게 다가갈 계획이다. 도민들은 다양한 기부 플랫폼을 통한 후원 기부 및 재능 기부와 자원봉사를 지원하는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경기리베라오케스트라의 활동과 성장을 함께 응원하고 누릴 수 있다.